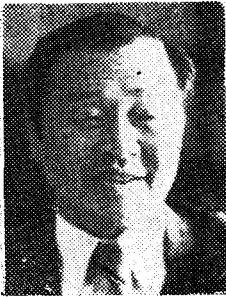


# 양계업계의 현황과 전망

대담자 / ①강 금노(신촌부화장사장) ②최 창해(서울산업대교수)  
 ③윤 경중(서울부화장사장) ④김 영환(천호부화장전무)  
 ⑤나 기현(연암 축산 교감) <무순>

## 명년도 후반기 산란계 초생추의 공급이 어려울듯

### ■ 75년도의 채란업계의 현황은? ■



강금노 사장  
(신촌부화장)

74~75년간의 외국산란중계의 수입중지로 중계의 고갈상태였기 때문에 75년의 중계업자는 묵은 중계를 다시 강제 환우시켜 중계로 쓰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환우한 중계를 갖고서 번식시키자니 산란율과 수정율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부화숫자가 많이 줄었고 초생추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명년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가서 산란계초생추의 공급이 매우 어렵게 전망됩니다.

### ■ 76년도 전망 ■

75년도에 산란용 초생추출하통계 1,040만수의 숫자만을 갖고서 본다면 명년 전반기에는 난가가 그리 좋게는 안보입니다만, 74년보다 75년도의 입추량과 소비량의 증가로 볼때 76년도에도 소비량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우리 부화업자 모두가 희생정신을 발휘해 가면서 생산조절에 적극 참여한 결과

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의 난가는 과히 너무 비관적인 것으로는 안보입니다. 허나, 현재 사료문제에서 강피류가 부족하여 사료비가 다시 오른다면 난가와 균형이 안맞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증진이 원활히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시기에 난가가 사료가격 이하로 하락되었으나 업계가 단합하여 공공단체나 회사 등에 도매시세로 파는 소비증진 방안이 모색되어 그런대로 위기모면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스스로가 방안을 모색하여 난가가 쳐질때는 이에 대처할 돌출구를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것도 명년도에 미리 세워뒀야 할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75년도 채란업계의 질병은 경상도 지역에 약간 있었으나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계인 서로가 적절할 때 단합을 잘해야하며 방역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양계인이 살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명년도도 금년과 같은 평년작이 아닐까!

### ■ 금년과 명년도의 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

채란업계는 여러해 동안의 통계 및 산란곡선으로 보아 명년도는 저로서는 평년작으로 생각됩니다.



75년은 경기회복으로 소비확장을 보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 소비도 좋다고 봅니다.

부로일러의 경우도 판육류에 비하여 싸기 때문에 비철에도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창해 교수**

**<산업 대학>**

그래서 76년도도 세미와, 돈육수출, 시장생계상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76년도 정망은 밝다고 내다봅니다.

양계업의 전망이 좋고 나쁜 것은 양계인 스스로한테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 희생, 협동하여 생산조절, 종계등록, 상호 정보교환, 양계통계자료의 정확한자료등을 각자가 양계협회를 위주로 솔선수범하여 행하여 주면 양계업계는 명망한 업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계를 취급하게 될 정육점도 닭고기 소비에 적극성을 띄어 취야 된다고 봅니다.

닭한마리가 돼지고기보다 좋다는 인식을 온 국민에게 모든 양계인이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현재 보유수수가 적정선이다

### 75년과 76년의 현황과 전망은?



**윤경중 사장**

**<서울부화장>**

12일 현재 양계가들은 부화장에서 부로일러 초생추를 160원에도 못구해 야단법석입니다. 이렇게 비철인데도 각부화장의 부로일러 초생추가 계속 딸리고 있는 원인은 육류소비율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돈육 매일 수출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인상으로 인한 가

격이 썩 닭고기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 시점에서 우리 양계인으로서는 흐뭇한 현상이라 보겠습니다.

부로일러에서 75년도의 생산조절이 제대로 잘 안되었습디만, 현재 양계협회에 집계된 보유수수를 기준으로 한다며는 명년도 전반기인 3~4월에는 경기가 괜찮겠고 후반기에 가서는 육용병아리의 대량생산과 왕병아리의 생산으로 인하여 부로일러업에 떡구름이 짙을 것 같은 위축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현재 보유 숫자가 가장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되며, 명년도의 소비가 높으면 보유숫자는 모자랄 것이고, 소비가 적으면 보유숫자는 남는 현상으로 좀 애를 먹기는 하나, 큰 혼란을 야기 시키지는 않는 선으로 봅니다.

### 내년의 부화 전망은

부화에서는 현재 종계생산에 의한 것으로 보면 채란계는 그동안 많이 생산출하되어 내년 전반기는 약간의 고전을 할 것 같으며 후반기에는 종계의 고갈로 초생추의 공급이 어려워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이번에 전국적인 생산조절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명년도는 큰 불황은 없겠으나 소비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계업은 소비위주가 아니고 건축에 의한 분산으로 양계단지나 서울근교나 시골등에 설립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나 도시공해로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명년후반기 육계가격 하락 전망

될

### 75년도 산란계의 현황은?

75년도 난용 초생추입추량은 74년도에 비하



**김영환 전무**

(천호부과장)

한편 73년 입추수수를 기준으로하여 비교하면 75년 입추수는 오히려 12% 적은 수수인 것으로 판단해 볼 때 75년도 입추수수가 불황을 초래할 만큼 많은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이후로 전국의 산란계 보유수수가 증가일로에 들어가는 사실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산란계는 76년 전반기에도 매일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잔알 생산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내년 난가의 변화유형은 예년의 패턴을 그대로 밟아 갈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3월에 상승했던 알값은 4월에 들어 햇닭 알의 생산증가로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종계부족으로 산란용 병아리 생산량이 부족할 것입니다.

75년도 백색산란종계 입추량은 약 17만여수 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숫자는 74년도 입추량의 70%에 해당하는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명년봄부터 난용 초생추의 생산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 ■ 75년도 육용계의 현황은? ■

75년도 육용계 역시 명년봄부터는 크게 달릴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금년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74년 10월부터 75년 5월까지 8개월간에 입추된 육용종계의 수량은 불과 9만여수밖에는 안된다는 상황을 놓고 볼 때, 명년 육용초생추 생산은 형편없이 적은 양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부화업체는 후반기 6~12월에 들어와서 육용종

계 입추에 과열현상을 보여 전반기의 2배인 약 20여만수나 되는 많은 수수를 입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4년도에 육용종계가 약 31만여수 입추되었다고 하면 역시 75년도에도 30만여수는 입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75년 육용종계가 30여만수 입추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의해야할점은 금년 육용종계의 입추가 전반과 후반에 걸쳐 적절히 분배되어 입추되지 못하고, 후반에 너무 많이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균형된 입추패턴으로 명년 전반기에는 육용초생추공급이 크게 부족한 반면, 감소해 주어야 할 7, 8, 9월에는 비교적 많은 육용병아리가 생산되어 9월 이후의 육계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걱정입니다.

### ■ 75년도 갈색종계의 문제점은? ■

75년도에 갈색종계가 날개돋친듯 팔린 것이 큰 문제점이 되어 질 것입니다.

축산시험장에서 나간 갈색종계가 43,000 여수, 한협갈색종계가 65,000여수, 기타 갈색계를 합쳐 약 12만여수 이상되는 갈색계종의 일부가 명년의 세미생산에 합법적으로 가담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 || 종계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점 ||

### ■ 종계에서의 문제점은? ■

현재의 입장으로 보아 우리양계업체에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모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으론 종계업자는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입산란종계가 얼마나 올 것인지? 들어올 것인지? 신년도의 축산정책이 또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 것인가?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외국종계수입증지로 인한 양계업계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미리 감안하여 새로운 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종계개량 사업에 아쉬운점은? ■

산란계나 육계의 국산계 개량사업은 일조일석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고 정부에서 국산계 개발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지원도 없이 육종업자가 어떻게 외국계에 능가하는 종계개량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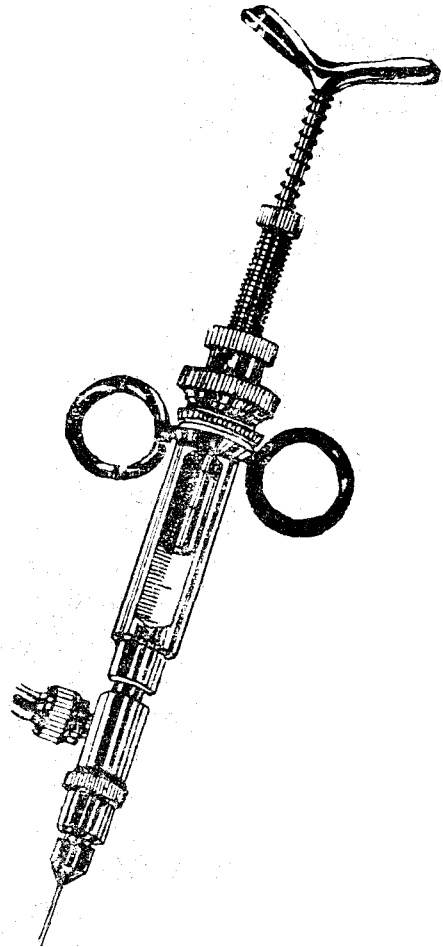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 육종업자가 생겨서 서로 경쟁도 하므로써 우리 양계육종산업에 발전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실정으로는 이런점들이 아쉽고, 종계고갈로 인하여 종계업자로서는 외국계이던 국산계이던 종계확보가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아닌가 봅니다.



양계용

# 연속주사기 입하

(독일제)



덕수 가축 약품상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4-3  
TEL : 28-6798. 0645